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할까?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행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 세 지역 주민들을 가정방문하여 성인과 노인들을 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20대에서 80대까지 총 313명(남 133, 여 180)이었다. 측정도구로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에 의해 제작된 어려움극복 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돈이 많다고 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증진의 핵심적인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도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다섯째,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여섯째,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를 통해 간접효과가 약하게 있었다. 일곱째, 연령은 자기효능감이나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이 없으므로, 나이는 자기효능감이나 행복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행복,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 월평균 수입, 학력, 연령

*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6년 1월 14일) 369회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이다. 여러 지역의 가정방문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한 SBS 강범석 PD와 조정운 작가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을 것이다. 방송 마감일을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인하대 토착심리연구팀의 노고가 컸다. 데이터 입력 및 정리(박은실 박사, 임미향 박사, 박현미 박사, 김미숙 박사과정, 장우귀 박사과정, 정부용 박사과정, 김난옥 석사, 권영주 석사)와 통계분석 과정의 전체 관리(탁수연 박사), SBS 제작진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윤영진 박사), 긴급한 일의 진행에 전반적 지원(정갑순 박사, 허희숙 박사, 최중숙 박사, 김영희 박사)을 아끼지 않는 등 모두 힘을 합하였다. 자료 수집을 도와준 박은실 박사와 통계 재분석에 도움을 준 한기혜 박사과정에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연구자가 불의의 사고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모든 병수발을 다 들어주어 이 논문 쓰는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고 행복한 마음을 선물해준 너무나 고마운 아들 정희영 군에게 이 논문을 바친다.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인생역전의 꿈을 이루었다. 또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대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벼락부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복권 당첨, 토지보상 등으로 어느새 10만에 달한다는 우리 사회의 벼락부자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돈이 많아진 만큼 행복해졌을까?

- SBS (2006) -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자. 극빈층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산층 성인들도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다. 가장으로서 성인 남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고, 집은 하숙집 같이 잠만 자야할 정도로 월급을 받기 위한 직장생활의 유지가 만만치 않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산층도 자녀교육비, 계속 상승하는 전세값 등을 감당하는 것이 힘에 벅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으로 돈이 없으면 의식주의 해결이 곤란한 것은 자명하다. Arthur Miller가 쓴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시사영어사, 2000)이 풀리처상을 받고 브로드웨이에서 2년간 장기공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36년간 외판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직장을 잃은 뒤, 집이 자기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달치 할부금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죽은 세일즈맨 주인공 윌리 로먼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삶의 고단함에 대해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윌리 로먼은 일에서 효율적 생산성을 잃었을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상실되는 오늘날 물질지향적 사회에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자녀들에게나 사회적으로도 특별

한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허덕이다가 보면, 어느새 육신은 늙고 병들어 있는 가장의 입장에 서 보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윌리 로먼의 할부금 인생의 모습이 연극 무대 위의 가상적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자기 모습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97년 12월부터 IMF시대로 접어들어 3년 만에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최근 뉴스(조선일보, 2009. 1. 23)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2008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했음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분기(-60%) 이후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만에 성장이 멈추었다는 증거는 그 뿐만이 아니다. 연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도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9년 상반기 성장률이 -2.6%(연 0.7%)로 추락할 것임을 전망하였으며, 2009년 1월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감소했다(조선일보, 2009. 1. 22)고 밝혔다.

국가 사회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인의 경제생활도 곤란해진다. 2005년 4월 이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질적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명칭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바뀌어 신용불량자의 명칭과 통계만 없어졌을 뿐이다. 2007년 기준으로 실질적 신용불량자가 500만 명 이상이며, 이들은 1, 2 금융권에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한국일보, 2007. 7. 9). 신용이 파탄 난 극빈층 외에도, 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얼

마나 힘겨운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전체의 58%인 961만 세대이고, 나머지 680만 세대는 무주택 세대이다(조세일보, 2008. 11. 21).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세대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Arthur Miller가 말하는 ‘세일즈맨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집 한 채 마련을 향한 세일즈맨의 경제적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 사회의 경제위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위기가 단순히 경제위기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경제위기는 수출격감과 내수침체, 경제성장률 급락, 부도기업 증가와 일자리 감소, 실업자 급증과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서민생활 악화, 사회불안과 갈등의 순서를 거쳐 사회 위기로 번지게 된다(조선일보, 2009. 1. 22.)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극빈층이나 하류층만이 아니라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에 연쇄하여 하청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그 회사들에 근무하던 모든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실직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생활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서민들은 돈을 벌어서 기본적인 생계의 해결을 위해 매일 허덕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을 뿐이다. 생계 걱정이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한국 성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쪼들린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삶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사회가 전반적으

로 궁핍하다 보면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건(오마니뉴스, 2007. 3. 15.)이라든가 여러 흉악 범죄들, 빚에 쪼들려 자살함으로써 목숨을 버리는 사건(스포츠 조선, 2008. 9. 8.) 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돈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거나 삶이 피폐해 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집착의 대상인가 하는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가 사회갈등과 사회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경제적 자원으로서 돈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 사람이 살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통해 돈을 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부가 축적이 되면 만족스러울 것인가? 즉 원하는 만큼 돈이 점점 더 많아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질까?

X축을 부의 정도라고 하고, Y축을 행복 또는 삶의 질이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x 와 y 의 어느 정도 비례적 관계가 X축의 어느 지점까지는 유지된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이냐는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만 확보되어도 다행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위 5%에 해당하는 한 달 월수입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y 와 비례관계를 형성하는 x 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는 개인차가 크지만, 어쨌든 누구나 X축의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x 와 y 가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X의 변화에 따라 Y가 지속적인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부의 정도와 행복은 다양한 복합적 곡선형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즉 $y=ax$ 의 선형적인

직선관계가 아니라, $y=\sqrt{x}$ 로 y값의 증가가 완만해지든지, 또는 y값이 아예 증가되지 않고 X축과 평행을 이룰 수도 있다. 오히려 x값 즉 부의 정도가 증가하는데 y값 즉 행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돈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벼락부자들을 찾아가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SBS, 2006)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해 준다. 로또 당첨이나 토지보상 등으로 부자가 된 뒤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심층 면접자료(SBS, 2006)들을 살펴보자.

[사례 1] 김**씨 부부는 3년 전 43억 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자신은 파출부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로또 당첨은, 분명히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 가족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회의를 느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일은 아들이 돈으로 입학했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 것이다.

[사례 2]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금슬 좋았던 한**씨 부부에게 로또 170억이 당첨되면서 부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노는데 정신이 팔린 남편이 못마땅했고, 남편은 아내가 친정식구들에게만 돈을 쓰는 것을 보며 화가 났다. 로또 당첨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부부는 9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고, 그 뒤로도 소송을 거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다.

[사례 3]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산 양**씨 가족은 일 년 전 토지보상으로 100억이 넘는 큰 돈을 받았다.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돈이 생겼지만, 양**씨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다. 토지보상 문제로

마을사람들 간에 고성이가 오가기도 하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정든 집이 없어지고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자 집안에 근심이 쌓여갔고, 그로 인해 우울해 하시던 아버지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 SBS (2006) -

벼락부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부자가 된 뒤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불행해진 경우가 많았다는 실제적 사례에 기초해 볼 때, 개인이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큰 돈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라기보다 무상관이거나 오히려 반비례 관계도 됨을 알 수 있다.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부자가 된다고 행복할 수 없다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위의 사례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례 1에서 김**씨 부부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싸우게 되면서 오히려 인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돈으로 학교를 입학했다는 주위 시선 때문에, 원하던 야구선수로서 삶을 포기하고 인생의 목표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큰 고통을 겪었다. 돈이 많아져서 집도 큰 것으로 바꾸고 차도 좋은 것을 구입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들의 질투와 욕심으로 좋은 이웃관계를 잃었고, 아들이 학교에서 로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가족 간에도 예전 같은 따스한 정이 부족하고 소원해졌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다. 김**씨 부부 사례는 아무리 돈

으로 인한 혜택이 있어도,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또는 이웃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례 2는 어떠한가. 한**씨 부부 경우에도 큰 돈이 생긴 후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9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하였다.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해 아내는 무분별하게 돈을 사용했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금슬 좋았던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파탄됨으로써 불행해졌다.

사례 3도 마찬가지이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평화롭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평생 도시 아파트 생활을 원하던 어머니가 생긴 돈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니가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던 아버지와 불화가 이어졌다. 게다가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조상의 묘를 이장하면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결국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다. 가정불화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아간 돈벼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갑자기 생긴 돈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가족 친구 이웃 등 주위의 가까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축진제로 작용하였을 때,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부가 갈등하거나 별거하거나 이혼하며,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사례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간관계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함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22.9%) 자기조절

(22.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가생활(14.5%) 화목한 가정(13.6%)이 지적되었으며, 이어서 원만한 인간관계(8.1%) 건강(7.0%) 학업 성취(6.6%), 기타(5.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범주가 가정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는 가정생활 외에 다른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범주는 모두 인간관계와 관련된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범주를 합하면 21.7%로서, 경제적인 요인과 자기조절과 더불어 약 22%의 최상위 비율의 범주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위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이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여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둘째,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넷째,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다섯째,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여섯째,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 여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와 정서적 지원은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러한 관계의 상대방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질적 분석만이 아니라 양적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높은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이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이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평균: 남 35세, 여 33세)과 고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평균: 남 45세, 여 42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검증되었다. 즉 30대이든 40대이든 연령을 불문하고, 결혼한 성인 남녀가 가정생활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와 같은 인간관계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가를 보여준다.

성인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간관계는 행복을 위해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b)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이 인간관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학교에서 교사학생관계와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히 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의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감 또는 삶의 질을 다루는 연구에서, 부모 교사 친구관계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아버지

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모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사회적 지원을 많이 제공할수록 자녀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만족도 및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모두 포함하였다. 한편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이 초·중·고등학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을 때,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회적 지원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시사되었다.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천식 환자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는 가족이나 의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질병의 관리와 건강의 회복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인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House, Landis, & Umberson, 1988)들에서 검증되어 왔다.

한편 행복이나 생활만족도와는 질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하였을 때나, 대학생의 스트레스(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 심사 중)와 우울(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심사 중)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개인이 주위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나 우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행복에 접근해 나가는데 도움이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원을 받으면, 그러한 지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상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객관적으로 보면 건강한 상태가 아픈 상태보다는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지각은 외적인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따랐다’는 속담처럼,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감사한 일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나아가서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외적인 자극이 어떠한 개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다. 결국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과 작용에 대해 시사를 주는 이론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주

목하기로 한다. Bandura(1997)는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임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Bandura가 제안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역할을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심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의 현상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모습은, 환경 통제에 대한 자기효능적 신념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Kim(1999)이 제안한 상호작용모형(transactional model)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김의철, 박영신, 1999a)된다.

Bandura(1995)는 이러한 인간의 효능적인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변인들을 여러 개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 관계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및 스트레스대처 효능감과 같은 하위변인들은 인간의 행복이나 생활만족도 또는 주관적 안녕감 등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결코 좌절하거나 우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환경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도,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나, 또는 생활에서 만족감을 유지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질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b)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질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에서와 동일한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서,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분석(박영신, 김의철, 2008a)을 하였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행복을 증진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또한 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심사 중)의 연구에 의하면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켰으며,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본 대학생을 통해서도 검증이 되었다. 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심사 중)의 연구에서는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증상만이 아니라 우울 증상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높은 효능감이 스트

레스나 우울을 극복하는데 큰 영향력이 있으므로, 결국 정신건강을 위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더욱 생활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지각할 것으로 시사한다. 외적 환경이 어떠한든 그 환경에 대해 통제감을 갖고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가 쉬울 것이다. 즉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는 더욱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가는 마음의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마음의 작용으로 자기효능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마음의 복잡한 작용들 중에 경험과학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변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또 본인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더욱 생활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화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차이 없이,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더욱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성인들의 삶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독특한 토착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더욱 행복한 조건과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시대 및 사회문화적인 토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im, Yang과 Hwang(2006)은 Kim과 Berry(1993)의 토착심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맥락 속에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각 문화에서의 토착 심리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심리학의 중요한 흐름(Kim & Park, 2004; Kim, Park & Park, 2000)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노력(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규명은 다양한 주제들, 즉 성취(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스트레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자기(김의철, 박영신, 2006a) 신뢰(박영신, 김의철, 2005) 효도(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8)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인 구인들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한국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다른 문화적 토양에서와는 구별되는 토착적 특징을 갖는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 행복의 토착심리에 대한 시사를 해주는 하나의 결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함에 있어 자녀

신뢰 변인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수록 효능감이 올라가고, 높아진 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녀의 학업충실과 성실 및 순종, 그리고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의 경우에 자녀가 성실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부모에게 순종할수록, 또한 혈연으로 연결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모가 관계 효능감 양육어려움극복 효능감, 자녀와의 의사소통 효능감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와 같이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개념이 자녀의 학업충실과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는 하위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해 신뢰하는 요소들이 되고,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성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결국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특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im & Park, 2006b).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높은 교육적 성취는 관계문화의 토양에서 자기인식과 인간관계 및 집단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Kim & Park, 2006a). 한국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김의철, 박영신, 2008)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혈연으로 상호 연결된 존재로 가정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적 성취나 성공이 부모에게 대리적인 성취감을 제공하고(Park, 2008)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부모를 감동시키는 정도의 기본(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8)이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를 이해함에 있어 토착심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행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국 성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복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삶의 질에 대한 개관 논문(박영신, 김의철, 2008b)과,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결과(김의철, 박영신, 2006b; 박영신, 김의철, 2006) 등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토대하여,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인 자원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인 자원과 관련된 변인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적인 역동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모형이 제작되었다.

그림 1에 제시한 연구모형 1은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변인들로 구성된 경로모형이다. 여기에는 최종 종속변인인 행복과 더불어 총 8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경로모형의 기본 틀은 학력, 정서적 지원, 연령, 월평균 수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직업성취와 자녀성공만이 아니라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한국 성인들의 행복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성취 자녀성공 정서적 지원 및 월평균 수입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므로 행복을 제외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7개 변인들 중에서 5개는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나머지 2개 즉 학력과 연령은 행복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경로모형이 설계되었다. 즉 학력은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를 통해, 연령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그림 2에 제시한 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한 틀로 구성되었으나, 단지 월평균 수입 변인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 변인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선과, 또한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선이 삭제되었다.

연구모형 1만으로도 이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수입 변인을 제외한 연구모형 2를 대안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수입 변인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직접 또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으로 연결되는 2개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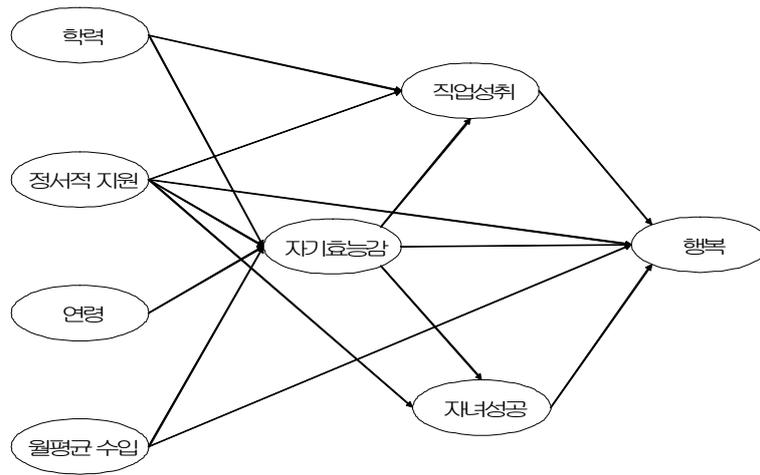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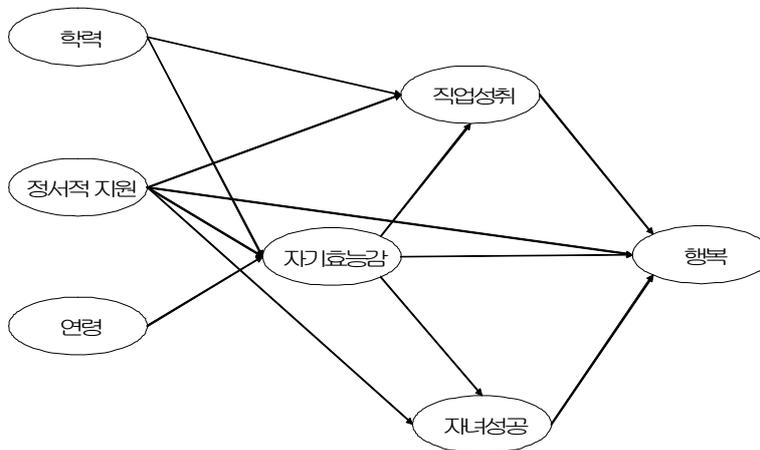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월평균 수입을 제외했을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선을 제외한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에 비해 행복을 설명하는 모형적합도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가정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월평균 수입이라는 변인이 제외되었을 때 행복을 설명하는 모형(연구모형 2 참고)의 적합도가, 월평균 수입 변인이

포함된 모형(연구모형 1 참고)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연구모형이 모형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이 선택될 것이다. 만약 연구모형 1의 모형적합도가 높아서 선택된다면, 월평균 수입은 한국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될 것이다. 즉 매달 경제적인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여부가, 사람들의 행복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연구모형 2의 적합도가 높아서 선택된다면,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고도 연구모형 1보다 한국 성인의 행복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인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월평균 수입과는 무관하게 한국 성인들의 행복이 다른 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기 때문이다.

만약 월평균 수입 변인을 제외한 연구모형 2의 모형적합도가 연구모형 1의 모형적합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고 비슷하다면, 월평균 수입 변인이 모형에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큰 영향력이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최소한 두 연구모형간의 모형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복잡한 모형 1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다 간명한 모형으로 현실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간명한 모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형 2가 선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쨌든 만약 연구모형 2가 선택된다면, 이는 모형의 다른 변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월평균 수입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월평균 수입 변인을 포함하지 않고도 포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행복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이 적절히 기능한다면 월평균 수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연구모형 내의 변인들간 상대적인 영향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월평균 수입이 자기효능감이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 외의 다른 변인들은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체 영향력 중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각각 어느 정도씩인지 등, 연구모형 내의 여러 변인들간 상호 역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다양한 사회계층의 성인들을 표집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역 세 곳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무선 표집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의 세 지역에서 각각 150명의 표집을 목표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첫 번째 지역은 최상류층 또는 상류층 표집을 위해, 강남구 도곡동의 약 10억 내외의 아파트 매매가를 보이는 고급 아파트단지로 하였다. 두 번째 지역은 중류층 표집을 위해, 은평구 불광동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주택가로 하였다. 세 번째 지역은 하류층 및 극빈층 표집을 위해,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계층이 낮아 소위 달동네로 지칭되는 판자촌 지역으로 하였다.

이러한 세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 실시를 부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강남구 도곡동 87명, 은평구 불광동 118명, 관악구 신림동 89명이었다. 비록 이 세 지역을 방문하여 질문지 실시를 하였으나, 본인의 거주지역이 다른 동네인 사람들이 23명 있었다. 이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했거나,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23

명이 처음에 의도한 세 지역이 아니라 비록 서울 시내의 다른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세 지역 사람들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표집하기 위해 세 지역을 표집 한 것이므로, 다른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23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해 무응답을 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18명이 표집되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35명, 여자가 183명으로 비교적 성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1의 표집대상 중에서 1명이 연령을 응답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연령변인은 모형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인이므로, 연령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은 최종 분석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연령을 빈도분석 하였을 때, 극단적인 값이면서 극소수가 표집된 19세 2명과, 91세 1명 및 93세 1명도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표집대상 총 318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하고, 313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을 연령별 성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13명 중에 남자 133명, 여자 18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80대까지 각각 36명에서 63명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였고, 모든 연령대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의 연령 평균은 52.28세이었고, 중앙치는 51.00세였으며, 연령 범위는 20세에서 88세까지 분포하였다. 학력은 무응답(8.0%), 초등학교 졸업(17.6%), 중학교 졸업(7.0%), 고등학교 졸업(19.8%), 대학교 졸업(39.6%), 대학원 졸업(8.0%)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47.6%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표 1. 표집대상

지역 성별	강남구 도곡동	은평구 불광동	관악구 신림동	기타	무응답	계
남	32	54	39	10	-	135
여	55	64	50	13	1	183
계	87	118	89	23	1	318

표 2. 분석대상

성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남	34	22	24	12	17	13	11	133
여	29	23	21	24	21	28	35	180
계	63	45	44	36	38	41	46	313

직업유형은 무응답(2.9%), 무직/주부(34.8%), 노동/생산(12.1%), 판매/서비스(13.4%), 사무/관리직(21.1%), 고위/전문직(15.7%)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의 분포는 여자들 중에 전업주부가 많았기 때문에 무직/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노동/생산에서부터 고위/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직업 분포는 거의 고르게 나타났다.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질문한 결과는, 매우 낮은 성취(2.2%), 약간 낮은 성취(7.0%), 보통(30.0%), 약간 높은 성취(22.0%), 매우 높은 성취(8.3%)로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통보다 높은 성취가 보통보다 낮은 성취보다 많음으로써 약간 편포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 평균을 응답자들이 직접 기록한 결과, 월평균 수입의 범위가 0원에서부터 1000만원 이었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수입의 평균을 구한 결과는 4,317,400원이었으며, 중앙치와 최빈치 모두 300만원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질문한 결과는 무응답(1.9%), 하(6.4%), 중하(19.8%), 중(55.6%), 중상(15.3%), 상(1.0%)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가 남고, 나머지 반응들을 보면 거의 정상분포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결혼상태를 질문한 결과는 무응답(0.6%), 미혼(25.6%), 결혼(46.3%), 사별(25.9%), 이혼

(1.0%), 별거(0.6%)로 나타났다. 결혼한 기혼자가 응답자의 약 반 정도에 해당하고, 그 외에 미혼과 사별이 그 나머지 반에 해당하였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에는 3개의 척도가 포함되었다. 각 척도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 및 문항 예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b)이 제작한 6개 문항 중에서 4개를 선별하였다. 4개 문항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더욱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작한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번역하여 그 중에서 5개를 포함하였다. 자기효능감 변인의 신뢰도는 .87이었다. 답지는 전혀 잘 할 수 없다, 약간 잘 할 수 없다, 약간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 매우 잘 할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측정 문항은 김의철과 박영신(2004, 2006b)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한국인의 삶의 질 인식에

표 3. 측정변인 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 수	<i>a</i>	문항 예
정서적 지원	4	.89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자기효능감	5	.87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	15	.88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제작하였다. 1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답지는 5점 척도였으며(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값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환산 공식은(1번에서 15번까지 모든 문항의 합계÷15)×25로 하였다.

세 개 척도 외에 몇 가지 변인들이 측정되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 변인과 연령 변인의 측정을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각자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력은 초등 졸,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졸업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업에서 성취한 정도는 매우 낮은 성취, 약간 낮은 성취, 보통, 약간 높은 성취, 매우 높은 성취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녀의 성공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실패, 약간 실패, 보통, 약간 성공, 매우 성공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배경정보 문항들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시내에서 구와 동을 직접 기록하게 하고, 성별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가족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의 수를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결혼, 별거, 사별, 이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직업유형을 무직/전업주부, 노동/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고위관리/전문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무직/전업주부는 직업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을 갖지 않은 응답자들을 위해 답지를 제시하였다. 결혼한 표집대상에 한해서 맞벌이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맞벌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시 방법

제작된 질문지는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표집설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서울시내에서 세 지역을 선정하였다. 강남구 도곡동, 은평구 불광동, 관악구 신림동에서 각각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모여 사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집대상은 그러한 각 지역의 주민들을 집 주소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들이 각 지역에서 주소로 무선추출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낮에 방문해서는 주로 전업주부나 노인들만 질문에 응답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성인 표집에 한계가 있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가장인 성인 남자 또는 직장여성 등도 모두 폭넓게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저녁 퇴근 시간 이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정방문을 하였다.

무작정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 실시를 부탁하면 아무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방문한 가정의 벨을 누르고 나서 먼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서 시민의 소리를 방영하기 위해 현장 취재 목적으로 찾아왔음을 밝혔다. 그래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는 질문지 실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단 대문을 열어주면, 2006년 1월 14일에 곧 방영하고자 하는 제 369회 프로그램인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제작을 위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응답한 결과는 즉시 분석되어 1월 14일에 방영될 예정임을 알려 주었다. 이러한 설명과정을 통해, 질문지 응답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SBS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응답

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문을 열어 준 경우는 질문지 응답에 협조하였다.

청년이나 성인의 경우는 질문지에 각자 응답하였으며, 응답이 끝나면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노인의 경우에 노안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터뷰 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즉 질문지 실시 전문요원들이 노인들에게 각 문항과 답지를 읽어 주고, 노인들이 응답하면 대신 질문지에 반응을 표기해 주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결 과

성별, 가족구성별, 직업별 행복의 차이

이 연구에서 측정된 각 배경정보 변인별로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성별 분석, 자녀 수 및 결혼 상태와 같은 가족 구성별 분석, 직업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직업별 분석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었다.

표 4에서 성별 행복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이는 성별에 따라 행복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녀 수 집단별로도 행복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자녀 수는 1명에서 6명 이상으로 여섯 하위집단별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는데, 집단별로 행복의 정도가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적거나 또는 많은 자녀 수 자체는 행복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여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직업 유무별 분석을 t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이 분석을 위해 여자 총 165명 중에서 미혼은 제외하고, 결혼하거나 사별한 여자 중에서 전업주부와 직장주부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

표 4. 성별, 자녀 수별, 직업유무별 행복의 차이

변인	하위집단	N	M	SD	t/F
성별	남	129	66.61	14.90	-1.65
	여	165	69.45	14.47	
자녀수	1명	26	72.56	14.23	.90
	2명	88	68.92	15.90	
	3명	32	71.56	12.89	
	4명	27	69.38	14.11	
	5명	15	66.11	13.42	
	6명 이상	23	65.00	17.62	
직업유무(여자)	전업주부	87	71.28	14.64	1.51
	직장주부	41	67.07	14.96	

표 5. 결혼상태별x성별, 맞벌이 여부별x성별 행복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SS	df	MS	F
주효과				
결혼상태별 (1)	1287.542	2	643.77	3.02
성별 (2)	94.862	1	94.86	.44
상호작용효과				
(1) × (2)	84.301	2	42.15	.20
주효과				
맞벌이 여부별 (1)	3.114	1	3.114	.016
성별 (2)	187.721	1	187.721	.940
상호작용효과				
(1) × (2)	42.502	1	42.502	.213

은 전업주부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주부이나에 따라, 행복에 대한 지각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5에서 결혼상태 변인은 원래 질문지에서 미혼, 결혼, 사별, 별거, 이혼의 다섯 개 답지로 구성되었는데, 응답자 분포를 보면 그 중에 이혼이 3명(1.0%), 별거가 2명(0.6%)에 불과하여 하위집단 구성이 곤란하므로, 결혼 상태별 분석에서 두 하위집단은 제외하였다. 그 외의 나머지 세 하위집단 즉 미혼, 결혼, 사별 집단간에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결혼상태별 변인이 성별 변인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이원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상태별 주효과가 의미 없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혼, 결혼, 또는 사별의 결혼상태 그 자체에 따라서는 행복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여 비록 혼자 살고 있어도 다른 조건들에 큰 문제만 없다면 결혼해 있거나 미혼인 경우에 비해 불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는

사실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혼상태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이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미혼이나 결혼했느냐 또는 사별이냐에 따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 비해 전혀 더 불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맞벌이 여부별 성별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을 때, 행복에 대한 주효과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이나 또는 아니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행복의 지각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행복 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성별, 자녀수별, 결혼상태별, 직업

유무별, 맞벌이 여부별로 행복에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경정보 변인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에서 이러한 배경정보 변인들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분석에서는 이러한 배경정보 변인들을 특별히 통제할 필요 없이 상관관계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모형 검증에 앞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구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행복 변인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월평균 수입과 어느 정도의 정적인 상관($r=.21$)을 보이지만, 행복과 정서적 지원과 상관계수의 1/3 정도 값에 불과하였다. 행복이 연령이나 학력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상관의 정도가 무상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았다. 행복이 정서적 지원과는 $r=.62$ 로

서, 상관행렬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행복은 자기효능감($r=.52$), 직업성취($r=.53$) 자녀의 성공정도($r=.46$)와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행복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으면 매우 행복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업에서의 성취가 높으며, 자녀의 성공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못 미치지만 매우 행복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월평균 수입이 더 높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시사되나, 정서적 지원을 받았을 때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나 직업에서 성취하거나 자녀가 성공했을 때의 행복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나 학력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었다.

월평균 수입 변인은 행복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직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월평균 수입과 자기효능감, 월평균 수입과 자녀성공은 무상관으로 나타났다.

표 6. 행복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월평균 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 성취	자녀 성공	행복
월평균 수입	1.00							
연령	-.03	1.00						
학력	.09	-.61***	1.00					
정서적 지원	.04	.23***	-.08	1.00				
자기효능감	.13	-.16**	.29***	.46***	1.00			
직업성취	.19*	.00	.17*	.31***	.33***	1.00		
자녀성공	.03	.03	.09	.32***	.28***	.38***	1.00	
행복	.21***	.13*	.12*	.62***	.52***	.53***	.46***	1.00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므로 월평균 수입이 높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니고, 또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연령 변인은 학력과 $r=-.61$ 로서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은 정서적 지원과는 약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기효능감과는 매우 낮은 부적 상관($r=-.16$)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음을 보여준다. 60대인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였고, 70대 이상인 사람들은 6.25 전쟁만이 아니라 일본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로써 당연히 학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이가 많은 집단이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은 더 받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또한 나이가 많은 집단이 약간 낮은 효능감을 보였지만 거의 무상관에 가까운 값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어느 정도의 정적인 상관($r=.29$)이, 직업성취와는 매우 낮은 정적 상관($r=.17$)이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이나 자녀성공과는 무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직업에서 성취하는 정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매우 미미한 정도 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것과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지원 변인은 행복과 극단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외에도, 자기효능감($r=.46$) 직업성취($r=.31$) 및 자녀성공($r=.32$)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직업에서도 성취하며,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변인이 행복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외에도, 자기효능감은 직업성취($r=.33$) 및 자녀성공($r=.28$)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고, 자녀들도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

직업성취 변인이 행복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외에도, 자녀성공과도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에서 성취한 성인들일수록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모형 검증

그림 3은 연구모형 1을 경로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모형 1의 모형적합도는 $GFI=.964$ 로서 양호하였다. 이는 이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행복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검증모형 1을 보면 연구모형 1에서 가정되었던 변인들 중에 연령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선이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경로선과 연령 변인이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나이가 더 젊다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나이의 연륜이 더 많다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도 아니며, 연령과 자기효능감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연령 변인을 제외하고는 연구모형 1에서 가정되었던 변인들이 검증모형 1에 모두 포함되었다. 경로선 경우에는 월평균 수입 변인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선이 의미 없는 것으로 삭제되었으며, 그 외의 경로선은 연구모형 1(그림 1 참고)에서와 같이 유지되었다. 월평균 수입 변인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경로계수는 $P=.114$ 로서 의미 있는 정적인 값을 보였으나, 검증모형 1에서 다

른 경로계수들에 비해 가장 낮은 값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월평균 수입이 높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전혀 증진되지 못함으로써, 돈이 많다고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한 경향이 있으나, 다른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서적 지원 변인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가 $P=.500$ 으로서 그림 3의 모든 경로계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은 직업성취에 대해서나 자녀성공에 대해서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높은 값의 정적인 경로계수($P=.398$)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주위사람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현저하게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직업에서의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이 높았다.

학력 변인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의미 있는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이보다 영향의 정도는 낮으나 직업성취에 대해서도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업에서도 성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 변인은 직업성취와 자녀성공 및 행복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감을 더 느끼고,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지각하며, 주관적인 행복감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성취 변인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정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를 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게 생각하였다.

자녀성공 변인은 직업성취 변인보다는 낮은 값이었지만, 행복에 대한 경로계수가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지각하면, 성인 부모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월평균 수입 변인을 삭제한 연구 모형 2를 경로분석으로 검증한 모형이다. 즉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직접 경로가 삭제되었고 나머지 변인과 경로는 연구 모형 1과 모두 동일한 모형이다. 그림 4에서 모형적합도를 구한 결과는 $GFI=.966$ 으로서 양호하였다. 이 적합도 지수는 그림 3에서 월평균 수입을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과 거의 유사하나 오히려 적합도 지수가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월평균 수입 변인을 삭제하고 경로분석을 하여도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행복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4에서 각 변인들간에 연결된 경로계수를 보면, 그림 3에 나타난 경로계수들과 거의 유사한 값이다. 경로계수가 동일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경로계수들은 거의 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모형 1(그림 3 참고)에 포함되었던 월평균 수입 변인이 모형에서 제외되었을 때, 검증모형 2(그림 4 참고)의 모형적합도 지수가 미미하지만 오히려 약간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변인들간의 경로선에서 경로값들에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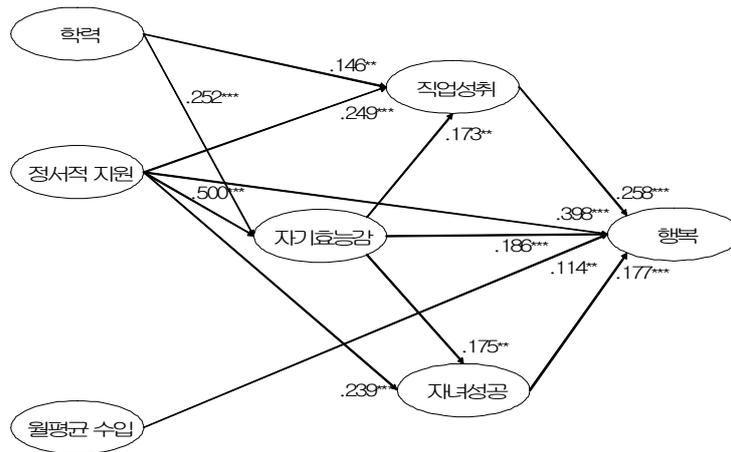


그림 3. 검증모형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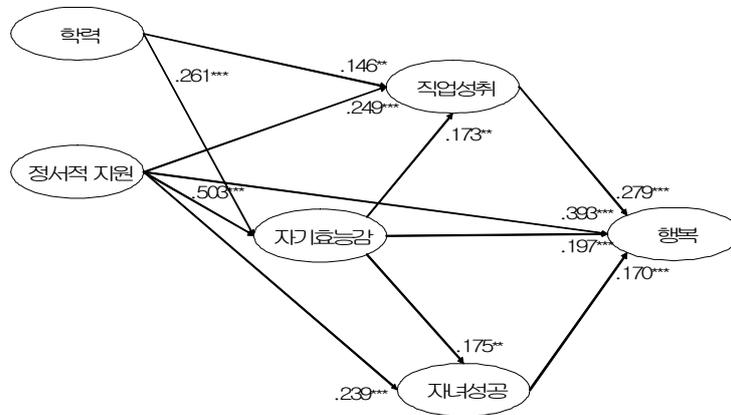


그림 4. 검증모형 2: 월평균 수입을 제외했을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두 검증모형 중에서 검증모형 1(그림 3)보다는 기왕이면 더욱 간명한 검증모형 2(그림 4)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림 3도 GFI=.90 이상으로서 모형이 적합하고 경로계수들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동일한 적합도에 동일한 경로값들이 나타났다면 간명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은 검증모형 1을, 표 8은 검증모형 2를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보면 월평균 수입에서 행복으로 가는 전체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14)가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10)보다는 크지만, 모형 내의 다른 변인들의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므로 월평균 수입이 높으면 더 행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 수입보다는 정서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행복에 훨씬 더 큰

표 7. 검증모형 1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정서적 지원 → 자기효능감	.50 (10.37)***	-	.50 (10.37)***
→ 직업성취	.25 (4.11)***	.09 (2.65)**	.34 (6.32)***
→ 자녀성공	.24 (4.00)***	.09 (2.82)**	.33 (6.05)***
→ 행복	.40 (9.25)***	.24 (7.41)***	.64 (15.05)***
학력 → 자기효능감	.25 (4.24)***	-	.25 (4.24)***
→ 직업성취	.15 (2.60)**	.04 (2.30)*	.19 (3.54)***
→ 자녀성공	-	.04 (2.41)*	.04 (2.41)*
→ 행복	-	.10 (4.35)***	.10 (4.35)***
월평균 수입 → 행복	.11 (3.11)**	.02 (1.58)	.14 (3.48)***
자기효능감 → 직업성취	.17 (2.74)**	-	.17 (2.74)**
→ 자녀성공	.18 (2.93)**	-	.18 (2.93)**
→ 행복	.19 (4.32)***	.08 (3.48)***	.26 (5.70)***
직업성취 → 행복	.26 (6.51)***	-	.26 (6.51)***
자녀성공 → 행복	.18 (4.51)***	-	.18 (4.51)***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검증모형 2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정서적 지원 → 자기효능감	.50 (10.44)***	-	.50 (10.44)***
→ 직업성취	.25 (4.12)***	.09 (2.65)**	.34 (6.34)***
→ 자녀성공	.24 (4.01)***	.09 (2.82)**	.33 (6.07)***
→ 행복	.39 (9.02)***	.25 (7.57)***	.64 (14.90)***
학력 → 자기효능감	.26 (4.39)***	-	.26 (4.39)***
→ 직업성취	.15 (2.60)**	.05 (2.32)*	.19 (3.58)***
→ 자녀성공	-	.05 (2.44)*	.05 (2.44)*
→ 행복	-	.11 (4.47)***	.11 (4.47)***
자기효능감 → 직업성취	.17 (2.74)**	-	.17 (2.74)**
→ 자녀성공	.18 (2.93)**	-	.18 (2.93)**
→ 행복	.20 (4.56)***	.08 (3.46)***	.28 (5.93)***
직업성취 → 행복	.28 (6.70)***	-	.28 (6.70)***
자녀성공 → 행복	.17 (4.29)***	-	.17 (4.29)***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정서적 지원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는 .64로서 가장 높았다. 전체효과 중에서 정서적 지원의 행복에 대한 직접효과가 .40이고, 자기효능감과 직업에서의 성취 및 자녀의 성공을 통한 간접효과가 .24였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대해 전체효과도 대단히 크지만, 그 중에서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때,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변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6이었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의 행복에 대한 직접효과가 .19이었으며, 직업성취 및 자녀 성공을 통한 간접효과는 .08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직업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26이었다. 그런데 직업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없으므로, .26은 모두 직접효과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더욱 행복함을 알 수 있다. 성인들에게 직업에서의 성취감(.26)이 행복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월평균 수입(.11)의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8이었다. 그리고 간접효과가 없으므로, 자녀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마찬가지였다. 자녀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18)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11)보다 약 1.5~2배 정도로 컸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공할수록 자녀를 둔 성인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였으며, 그것은 월평균 수입이 증가됨으로

써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크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10이었는데, 여기에서 직접효과는 없고, 모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및 자녀성공을 경유한 간접효과였다. 이와 같이 여러 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들을 모두 합해도,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보다 적었다. 그러므로 학력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아지고, 직업에서의 성취에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음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학력이 행복에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한 영향력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8은 그림 4를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각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보면, 표 7에서의 값들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64로서 표 7에서와 같았다.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28로서,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표 7보다 .02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자녀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7로서 표 7보다 -.01 더 작은 값을 보였다. 학력의 전체효과는 .11로서 표 7보다 .01 더 큰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수입이 들어간 연구모형 1과 월평균 수입이 제외된 연구모형 2의 효과분석결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과 표 8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서적 지원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는 .6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은 예컨대 월평균 수입에 비해 4~5배 정도로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가 동일하게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가

높았는데, 예컨대 월평균 수입이 미치는 영향보다 약 2배 정도로 컸다. 그 다음으로 자녀 성공이 행복에 대한 효과가 컸는데, 예컨대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효과보다 약 1.5배 정도로 컸다. 월평균 수입이 모형에 포함된 경우는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영향이 자녀성공 변인 다음으로 효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학력이 행복에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었다.

논의 및 결론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Hellen Keller (1880-1968)

필요조건이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경제적 자원

이 연구를 시작하며, 최근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삶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고단하며 힘든가를 생각해 보았다. 보통 사람들에게 절실한 삶의 화두인 돈 벌기 위해 바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원하는 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충분히 있으면 더욱 행복한지를 검증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극빈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돈을 벌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여러 사례(SBS, 2006)를 보았을 때, 많은

돈이 생겼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2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기 2년 전과 당첨된 후의 행복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36단계 중에서 불과 1단계의 행복이 상승(SBS, 2009) 하였다. 또한 미국 400대 갑부들도 케냐 초원에서 마른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원주민들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일 뿐(SBS, 20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성인들의 경우에 20억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SBS, 2009). 그럼 과연 20억 원이 생겼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6년 동안 30억을 벌은 35세 샐러리맨은 “월 4천만 원 넘게 버는데, 4억을 번다고 해서 제가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SBS, 2009) 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고, 소득이 증가하면 욕구 수준은 비례하여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월평균 수입에 따라 행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경과 지팡이와 간단히 걸칠 옷이면 충분했던 간디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났거나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자. 당장 병원 응급실에 가려도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무료로 입원시켜 수술하거나 치료해줄 곳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와 생계를 위해 돈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고차적인 심리 차원에서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경로분석(그림 3 참고)과 효과분석(표 7 참고) 결과를 보면, 월평균 수입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돈을 더 가지면 어느 정도는 더 행복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보다 행복을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변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구모형 내에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볼 때, 돈이 비록 행복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다른 변인들에 비해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4~5배 정도 되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및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2배 정도,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한편 월평균 수입 변인을 검증 모형에서 제외했을 때(그림 4 참고) 월평균 수입 변인이 포함된 모형(그림 3 참고)보다 오히려 모형적합도가 약간 더 높음으로써,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 변인이 잘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크게 없어도 다른 중요한 변인들이 잘 기능한다면 행복에 대한 지각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돈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함을 밝혀준다. 즉 원하는 부가 축적되는 만큼, 행복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이 막연히 믿는 가정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조건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모형에 포함

되어 있는 다른 변인들 즉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충분히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직업에서 성취하고,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장했을 때,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다른 변인들이 전제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결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다른 변인들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력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력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김의철, 박영신, 2006b)으로서 기본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서 경제적 자원인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이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된다. 즉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만(그림 3의 검증모형 1의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직접적 경로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함), 다른 변인들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표 7에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이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음). 그러므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표 8에서 행복에 의미 있는 전체효과를 나타내는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이 충족됨), 돈이 없어도 행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림 4의 검증모형 2에서 월평균 수입을 제외해도 행복의 모형적합도가 오히려 약간 증가함). 이러한 미묘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으로 돈이 인간의 행복 심리에 미치는 양면성과 이중적인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고 있다.

행복 증진의 핵심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지원은 행복이나 직업성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도 크게 중요한 영향(그림 3, 4 참고)을 미쳤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효과는 .64로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값을 보였다(표 7, 8 참고). 월평균 수입의 행복에 대한 전체효과가 .14에 불과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4~5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지원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한다.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히 밝혀져 왔다.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박영신, 김의철, 2008a), 환자의 신체적인 건강증진을 위해(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심사 중), 다양한 대상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땅 상속 문제로 자식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부모와 자녀간의 인연마저 끊게 된 박**씨(SBS, 2009) 경우는, 돈이 발단이 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10억 이상이면 가족 및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53%나 되는 현실(SBS, 2009)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돈의 획득을 위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가 관계 중심이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연구들(Kim, 2003; Kim & Park, 2006a, 2008)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사지가 없지만 오토다께의 행복한 표정과 평온한 마음과 실제적인 성취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이것은 ‘종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의 말(전경빈 역, 2007)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한 희망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본인의 처절한 노력과 정신력도 중요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담임선생님의 지도가 오늘의 그를 만드는데 큰 영향력이 있었다. 오토다께는 이러한 양육태도나 지도의 방식을 통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헬렌켈러도 마찬가지이다. 헬렌켈러는 태양을 볼 수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가지면 행복하므로, 용기를 가지라고 하였다. 그러한 힘과 용기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헬렌켈러에게도 가족과 설러번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대단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면 돈을 준다는가 실제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연상하기 쉬

운데, 이 연구의 결과는 주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가장 분명한 답변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이 시작되는 근원이고 바탕이다. 삶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화해 내고,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인간 마음의 기능이다.

그러한 마음이 하고 있는 기능들을 심리학적 구인으로 표현한 것 중의 하나로서 자기효능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andura(1997)가 정의했듯이 자기효능감은 주위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모두 갖추어진 마음의 상태(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환경적인 여러 자극에 대해 긍정적으로 통제를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동안 경험과학적 자료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스트레스(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 심사 중) 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어온 두 흐름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첫째는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성취로 연결되는 모형의 검증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의 학업성취모형을 검증함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확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직업성취 과정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검증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정서적 지원이 직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 4 참고).

한편 한국 성인들이 직업에서의 성취 외에, 가정에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 느끼는 가정적인 성취의 역동도 이 연구의 모형에서 동시적으로 다루어졌다.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들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정서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자녀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확인되었다(그림 3, 4 참고). 자녀의 성공을 성인 부모의 가정적인 성취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음을, 자녀의 성취가 한국 부모에게는 대리적인 성취로 받아들여짐을 논의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분석(김의철, 박영신, 2008) 및 교육적 성취와 부모자녀관계(Kim & Park, 2006b)에 관련된 연구들에 토대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직업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성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성취 변인들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성취의 모형이 이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자녀성공으로 이어지는 모형은, 그동안 탐구되

어은 토착심리이론(Kim & Berry, 1993; Kim, Yang & Hwang, 2006)에 토대한 논의들을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적 틀과 함께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인에게 직업의 성취는 개인 차원의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성공은 가족이라는 집단의 성취 또는 관계에서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맥락 속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둘째는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행복 또는 생활만족도로 연결되는 모형에 대한 검증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자기효능감은 성취모형 뿐만 아니라 행복 모형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 사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조절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것을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불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수도 있고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에 대해 자기효능감과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예컨대 동양의 불교적인 전통이 시사하는 바처럼, 역설적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모든 세상적인 갑옷들을 오히려 벗어 버리는 것,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앞으

로 이러한 심리적인 메카니즘들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두움을 제거한다고 저절로 빛의 세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불행한 요소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왜 불행해졌는가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 논리가 그대로 행복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를 시사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의 요소들이 없어야 하지만, 불행의 요소 제거와 별도로 행복의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높아 지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의 확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복이란 그러한 재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가에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창조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불행한 요소가 없어야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감사, 헌신, 신뢰, 희생, 믿음, 이해, 격려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생성 및 확대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등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큰 틀 속에서 계속 정교하게 해나가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 요구된다.

자녀성공을 통한 행복의 토착심리

이 연구의 모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토착심리가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성인 개인의 직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통한 부모의 가정적인 성취가 한국 성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경로(그림 3, 그림

4 참고)이었다. 즉 자녀의 성공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직접효과(표 7, 표 8 참고)가 확인됨으로써,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가 규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대리적인 성취감을 주어 행복을 주는 것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취에 몰두하는 현상의 심리적인 근원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희생을 하였을 때 자녀가 효도를 하는 메커니즘(Park & Kim, 2004)에서, 효도의 방식으로 학업성취 등 다양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표현의 형태가 가정(박영신, 김의철, 2004b) 되었다.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하였을 때 자녀가 학업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인 효도(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8)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의 성취나 성공이 부모 마음에 행복을 선물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토착심리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5) 결과에 토대하여 자녀 신뢰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8a)한 결과에서도, 자녀에 대한 신뢰는 부모의 효능감을 증진시켜서 결과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켰다.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는 학업 충실, 성실성, 순종, 혈연관계와 같은 하위변인들에 의해 측정된 잠재구인이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학업에 충실 하는 것이 부모로 하여금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력이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학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직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대해 간접효과(표 7, 표 8 참고)가 있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유행어가 있듯이, 성적이 높다든가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력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직업에서의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복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력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또한 직업적 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업적 성취가 높아지면 더욱 행복하므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학력이 행복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과열되고 있는 현상도, 한국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높은 학력이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직업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마음의 행복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본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를 학업에서의 실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토착심리 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와도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학업에서 실패적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업의 실패를 매우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의 실패나 낮은 학력이 행복에 대한 지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나타내는 과잉 교육열 현상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의 방향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들에 대해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 바 있다.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통한 통제감의 중요성,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남아 있는 연구 과제를 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결과들이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 좋을 점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후속연구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은 행복과 무관하였다. 연령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령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연구모형에서 가정되었으나, 검증 결과 연령은 현재의 경로모형 속에서 의미 없는 변인으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는 여부가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20대 이상에서 80대까지 연령에 속한 성인과 노인이었다. 비교적 연령 범위가 넓기는 하였지만, 20대 이하의 청소년 집단은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령 범위를 만약 10대 청소년까지 포함하였을 때, 변산이 더 커져도 여전히 연령이 행복과 무관한지 여부는, 현재의 결과로만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모형은 성인의 행복에 관한 모형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의 행복을 검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후속 연구에서 10대를 포함하여 연령범위를 더 넓게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보다 적절한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이나 노인과는 행복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역동이 전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청소년 행복모형의 구축을 위해 학업성취와 같은 변인이 포함되고, 성인의 행복 모형에 있는 자녀의 성공이라든가 직업에서의 성취와 같은 변인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 구성된 청소년 행복 모형이 새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성인의 행복을 잘 설명하는 변인들을 찾아서 성인의 행복 모형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성인의 행복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타당한 변인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연구모형에 추가하고, 모형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비록 이 연구의 모형이 높은 GFI로 적합도가 좋았지만, 더 높은 모형적합도를 추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모형을 확대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변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건강 변인을 추가하면 행복의 정도를 예측하는 설명 변량 및 모형의 적합도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형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신체적 건강 변인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의 경로모형을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자녀성공 변인은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변인 외에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의 역동을 잘 설명하는 변인이 있다면 계속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 있는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성인의 토착적 행복 모형이 보다 정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월 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4~5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4~5배라는 결과는 이 연구에서의 표집이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연구의 모형이 비교문화적으로 검증되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나라에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상 중 하류의 사회계층이 모두 고려되고, 20대에서 80대의 다양한 성별 연령층이 무선 표집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집이 가능하여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비교하는 참으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예컨대 한국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나,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중심적인 정

서적 지원의 효과크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과 같은 자원의 획득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러한 경제적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고, 경제적 자원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획득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을 뿐, 자원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된 셈(SBS, 2006; 김의철 인터뷰)이 되었다. 즉 돈을 활용하여 의미 있고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돈 그 자체에 탐닉하거나 부의 축적이라는 결과 자체에 노예처럼 얽매어는 삶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경제적 자원이 궁극적인 목표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결국 순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위해 자신의 진짜 삶을 희생했던 허영이 있는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가짜 목걸이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어찌 모파상의 목걸이(전혜경 역, 2000)에 나오는 여 주인공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가짜를 쫓다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진짜를 놓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해 나가고 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으려면, 인간의 마음을 현혹시키

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 내려놓기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든다면, 생명체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건강, 의식주의 기본 생계를 위한 경제력 등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기본이 되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보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면, 답은 셀 수 없이 많아지고 한결 복잡해진다. 개인마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기준의 유형과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위사람들과 정이 흐르는 따스한 인간관계, 누구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원하는 목표의 성취를, 누구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향유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하일 천사의 깨달음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사랑으로 산다’는 매우 추상적인 답변은, 이 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도한 심리학적인 구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에 의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연구에서 모형을 검증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4~5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을 선물해 주는 주위 사람들

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은 저절로 그냥 공짜처럼 주어지는 것일까. 관계는 서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주위에 온기가 흐르게 되고, 결국 더불어 행복을 나누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현대 과학의 발전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도 사람들이 어려웠던 과거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인간적으로 진정한 정서적 지원의 교류가 힘들어진 것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은 과학의 발전에만 의지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애에 바탕한 진정한 소통이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적 지원은 인간 삶의 행복과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1999a). 서장.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11~42.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1999b).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

- 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 총서2.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김의철, Tsuda, 박영신, 김의연, Horiuchi(심사중).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비교: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중심으로.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5권.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8a).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8b).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8).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토착심리 분석.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 '긍정의 힘과 인간발달', 115~118.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

- 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박영신, Tsud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심사 중).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에 대한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 스포츠 조선 (2008. 9. 8.). 안재환의 자살 원인은 40억원 빚 독촉 때문.
- 시사영어사 편집부 역 (2000). 세일즈맨의 죽음. *영한대역문고* 29. 서울: 시사영어사.
- Miller, A. *Death of A Salesman*.
- 오마니뉴스 (2007. 3. 15.). 빚 때문에 어린이 유괴 살해, 다시 '그 놈 목소리' 사건: 용의자 이씨 "빚 때문에 범행, 차량 이동 중 피해 아동 질식사".
- 전경빈 역 (2007). 오체 불만족. 서울: 창해. H. Ootake (1998). *Gotaihumanzoku*. Tokyo: Kodansha Ltd.
- 전혜경 역 (2000). 모파상 단편집. 서울: 헤원출판사. Guy de Maupassant (1894). *La Parure*.
- 조선일보 (2009. 1. 22.). KDI 올 상반기 성장률 전망 '-2.6% 충격'. 신규 일자리 3개월 사이 12만개 줄어. A3 면.
- 조선일보 (2009. 1. 23.). '마이너스'의 공포: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3.4% , 10년 만에 성장 멈춰. A1 면.
- 조세일보 (2008. 11. 21). 통계 속 부동산 ①: 대한민국 전체 세대 중 58%만 주택 보유.
- 한국일보 (2007. 7. 9).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이후 500만 명 여전히 신용불량자 고통.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In U. Kim, S. Aasen, & S. Ebadi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Experience and research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b). Indigenous

-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491~515. San Diego, CA: Elsevier/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SBS (2006). 그것이 알고 싶다, 369회,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2006년 1월 14일 밤 10시 55분).
- SBS (2009).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 2 부작 돈 나라 사람 나라, 제 1부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2009년 1월 10일 밤 11시 10분), 제 2부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2009년 1월 18일 밤 11시 10분).

1차 원고 접수일 : 2009. 01. 3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9. 02. 15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Can money buy happiness? If not,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What makes people happy?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How can we better explain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These are the research questions that led to the analys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financial resources that influence happiness. To examin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status, adults and elderly from three different districts that vary wealth and income were interviewed in their own home. A total of 313 respondents (male=133, female=180) between the ages of 20 through 80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contained background information, emotional support scale and happiness scal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 and resiliency of efficacy developed by Bandura(199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nthly income influence happiness to some extent, but when the variable was excluded from the path analysis, the goodness-of-fi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lthough those who have more money can be happier, those without much money can also be happ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inancial resource has limited influence on happiness. In addition, monthly income did influence self-efficacy of respondents indicating that those with more money were not necessarily more confident about themselves. Second,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is the relational resource. Emotional support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happiness, four to five times more important than monthly income. Third, self-efficacy influenced happiness. Those respondents with higher resiliency of efficacy had higher happiness scores and the influence was two times greater than monthly income. Moreover, self-efficac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happiness. Fourth, those respondents with higher occupational achievement reported higher happiness score and the influence was two times greater than monthly income. Fifth, success of children influenced happiness score and the influence was 1.5 times greater than monthly income. Sixth, education did not directly influence happiness, but had an indirect influence through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Seventh, age was not related to self-efficacy and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occupational achievement, success of children, monthly income, education, age*

부록: 성인용 질문지

이 질문지는 성인들의 웰빙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지에 V표 하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0	1	2	3	4
2.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0	1	2	3	4
3.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0	1	2	3	4
4.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0	1	2	3	4
5.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0	1	2	3	4
6.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0	1	2	3	4
7. 나의 교육적인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0	1	2	3	4
8.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0	1	2	3	4
9.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긴다.	0	1	2	3	4
10. 나는 건강하다.	0	1	2	3	4
11.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0	1	2	3	4
12.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0	1	2	3	4
13.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0	1	2	3	4
14.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0	1	2	3	4
15.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0	1	2	3	4

아래 문항은 주변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일치하는 답지에 V표 하세요.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0	1	2	3	4
2. 잘 알고 이해해 준다.	0	1	2	3	4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0	1	2	3	4
4.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0	1	2	3	4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일치하는 답지에 V표 하세요.

	전혀 잘할수없다	약간 잘할수없다	약간 잘할수있다	어느정도 잘할수있다	매우 잘할수있다
1.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	0	1	2	3	4
2.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까?	0	1	2	3	4
3.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0	1	2	3	4
4. 곤란에 부딪쳤어도, 당신의 사기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0	1	2	3	4
5.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0	1	2	3	4

배경정보

1. 거주지: () 시) 구) 동)
2. 성별: () 남 () 여
3. 연령: (만) 세)
4.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5. 직업: () 주부/무직 () 노동/생산직 () 판매/서비스직 () 사무/관리직 () 고위관리/전문직
6. (직장이 있는 경우만) 직급: () 사원 () 대리/과장급 () 차장/부장급 () 임원급
7. 직업에서 성취한 정도: () 매우 낮은 성취 () 약간 낮은 성취 () 보통
 () 약간 높은 성취 () 매우 높은 성취
8. 가정의 경제적 소득 수준: () 하 () 중-하 () 중 () 중-상 () 상
9. 가정의 월 평균 수입: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 만원)
10.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 () 극빈층
11. 결혼 상태: () 미혼 () 결혼 () 별거 () 사별 () 이혼
12. (결혼한 경우만) 맞벌이 여부: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 아님
13. (자녀 있는 경우만) 자녀 수: () 명)
14. (자녀 있는 경우만) 자녀의 성공 정도: () 매우 실패 () 약간 실패 () 보통
 () 약간 성공 () 매우 성공

여러분의 협조는 한국 성인의 웰빙에 대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결과는 2006년 1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질문지 제작 및 분석 협조 자문교수
제작진: PD 강범석	인하대 경영학부 IFP교수 김의철
작가 조정운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신 올림